

농업정책 본격 시동... 농가가 웃는다

임실군표 고추·양파 재배농가·농가실질소득 향상

임실군이 돈버는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임실군표 농업정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군은 농가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해 벼는 물론 고추와 양파 등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군은 올해 양념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고추와 양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한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먼저 일반 고추 재배 농가에 대한 고추 종자대는 한 봉당 지난 해 2만원이었던 것을 2만5천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동부권 고추와 예약재배 농가의 경우에는 육묘비를 군비를 들여 주당 40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임실고추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추 멀칭지원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고추재배에 있어 통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고추 지주대 사업도 이어간다. 또한 겨울철 유희 농

계에 양파를 재배할 수 있도록 종자 대와 멀칭대 지원율을 45%에서 50%로 상향지원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지난 해 세 번째로 열린 임실 아사아사 김장페스티벌은 군의 대표 농업정책인 양념산업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이러한 김장 체험과 양념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농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생산시설과 품목 재배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벼 재배농가에 대한 육묘용 고품질 상토도 공급한다.

올해 8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육묘용 상토지원은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번기 상토 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해 준다. 이를 통해 우량 육묘를 생산, 고품질 쌀 생산을 촉진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지원되는 육묘용 상토 대상면

적은 총 3,850ha다. 1ha당 일반상토는 70포/201 매트는 350매를 지원하며 복토용 일반상토는 30포/201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000㎡ 이상 관내 벼 재배 농가로 읍면 산업담당을 통해 2월 20일까지 신청 받아 대상자를 확정하고, 못자리 설치 시기 이전에 공급을 완료해 농번기 상토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상토원 부족으로 못자리 작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농민들의 일손을 돕는 동시에 상토확보를 위해 산림을 무단훼손하는 사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심 군수는 "육묘용 고품질상토를 공급하여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하고 튼튼한 육묘 생산으로 올해도 풍년 농사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임실군표 농업정책의 핵심은 농가들의 소득을 높여주고, 돈버는 농업을 실현시켜 주는 것으로,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구제역·AI 차단 방역 정월 대보름 행사 자제"

순창군이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을 위해 각 읍면에서 추진하는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오는 19일 각 읍면별로 주민과 관광객 등 수백명이 모인 가운데 달집태우기, 민속놀이 체험 등 정월대보름 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연이어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실정

을 감안해 군은 선제적 차단 방역의 일환으로 대규모 행사는 자제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군은 현재 비상근무 체제를 이어가고 있으며, 유관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순정축협, 공수의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전담 공무원 우제류 농가 예방 및 취약농가 방역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 축협공동방재단을 활용해 소규모 농가 및 축산관련시설 소독실시 등 실질적 방역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18일부터는 긴급 백신 접종 후 항체

가 형성됐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도 착수한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행사 자제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구제역 확산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 군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황숙주 군수는 주중에는 물론 주말까지 가축 방역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설연휴 기간인 4일에는 거점 소독시설 현장을 찾아 방역 요원을 격려하는 등 방역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특색있고 맛있는 '맛집' 선정 나서

임실군이 머물고 싶은 문화 관광도시를 구현하고 지역 외식업 수준 향상과 차별화 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나섰다.

14일 군에 따르면 음식의 맛, 서비스, 시설 등이 뛰어나고 대중이 쉽게 이용 가능한 지역 대표 '맛집'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선정대상은 임실군 소재 대중이 쉽게 이용 가능한 일반음식점 중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영업 중인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절차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여부를 판단하며, 심사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맛과, 친절도, 위생상태 등을 평가한다.

임실 맛 집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임실N치즈축제 음식 부스관 참여자격 부여, 맛 집 표지판 부착, 위생용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맛 집 홍보용 책자와 온라인 매체 등에 실려 전국적으로 홍보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가축재해보험 가입 권장

남원시는 자연재해와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산피해 발생시 피해액의 80%이상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올해 4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지원할 계획이다.

소, 돼지, 말 및 가금류 8종과 기타 가축 5종 등 총 16종의 가축을 사용할 수 있는 축산시설물에 지원한다.

농가당 최대 1백만원 한도내에서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한다. 보험가입 회

망능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에 수시로 자부담을 내고 가입하면 된다.

형진우 축산과장은 "폭염, 태풍 피해가 급증하는 실정이라며,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을 통해 농가의 자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이 밤(옥광) 판촉행사를 갖고 판로 확대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밤 수도권 판촉에 발 벗고 나서

순창군, 양재 하나로유통센터서 친환경 쌀 증정

순창군이 서울에서 대표 농산물인 밤(옥광) 판촉행사를 갖고 농산물 판로 확대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14일 서울 양재 하나로 유통센터에서 순창군이 주최하고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주관으로 밤(옥광) 판촉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장경민 순창군지부장, 유광희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양준섭 동계농협장, 밤 생산농가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특별이벤트로 친환경 쌀(1kg) 500포와 딸기(250g) 500팩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순창군 밤(옥광)으로 달일 전 밤떡 시식행사도 이어져 행사장 분위기에 열기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사전에 열린 홍보 때문인지

행사시작전부터 200여명 가까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소비자 등은 지난해 행사때 구매했던 고객들이 많았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판촉행사가 기대감을 충족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밤(옥광) 판촉행사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며, 밤 1kg에 7,500원씩 판매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청정지역 순창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의 홍보를 위해 군 차원에서 다양한 직거래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도시 유통 판매망을 개척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국비 9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남원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참여자 모집

남원시는 행안부에서 주관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9억2,000만원을 확보하고, 9개 18일부터 22일까지 신청받아 40명을 선정하고 하반기에 2개 사업에서 10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웃칠 목공예업체의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인턴으로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어린이집 청년 전문조리사를

양성하기 위해 2명을 모집한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만18세~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세부사업별 지원내용과 근무조건, 신청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고시에서 가능하고, 22일까지 실과 및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신청하면 서류 및 면접심사 등을 거쳐 2월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공급 지자체에 선정

남원시가 서울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강한 식재료를 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공모에 전국 5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서류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를 통해 2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서울시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 1:1 연결을 통한 직거래로 농산물을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3월부터 서울시 동대문구와 공공급식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우수 농특산물과 가공품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친환경쌀을 비롯해 감자, 당근, 애호박, 고구마, 참쌀, 잡곡류 등 6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3년간 공급, 연 15억원이상 매출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조 원예사업과장은 "시에는 서울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계기로 품목별 생산농가들과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으로 공급망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장 체험을 통한 마케팅 전략으로 친환경농산물 명산지 육성과 농업 농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더블보상제 연중 운영

남원소방서는 주택에서 불이 났을 때 사용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보상해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double)보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화재 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경보음을 듣고 대피에 성공한 경우, 사용된 주택용소방시설 수량의 2배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작년 한해 도내 더블보상제로 소화기 28대, 단독경보형감지기 4대가 지급됐다.

변기호 방호구조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아직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있고, 또 소화기가 비치되었지만 소화약제가 꺼지거나 소화기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도 있어, 월1회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의 날을 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